



## 우석대 새빛장학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새빛장학회는 9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정진자 새빛장학회장(특수교육과 교수), 새빛장학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과 한준서(2년)와 김유나(3년), 김민서·이민주(4년)씨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1년 1월 발족한 새빛장학회는 선배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새빛장학회는 150명의 장애 학생에게 장학금 450만 원을 지원하며 꿈과 용기를 불어나 주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배움의 열정으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출연해 주신 새빛장학회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 무주자봉센터, 골목 LED태양광벽부등 설치 봉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녕한 무주만들기, 기업과 함께해요

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8월 8~9일 2틀 동안 사정마을 인근 가로등불이 달지 않는 아둡고 좁은 골목 15곳에 LED태양광 벽부등(80개)을 설치하였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으로 진행된 ‘반딧불이의 사랑’ 사업은 저예산으로 가로등불이 달지 않는 아둡고 좁은 골목등에 반딧불이가 빛을 밝혀두루이 LED태양광 벽부등 설치해 범죄의 시작지대를 밝혀주는 사업이다. 이날 반딧불이의 사랑 사업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따른 민원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어린 귀갓길 여성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시, 혈액 수급난 ‘사랑 나눔 혈액캠페인’ 전개

정읍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9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혈액 운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헌혈과 개인 헌혈이 감소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앞장서 솔선수범해지는 취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사랑의 혈액 운동’은 시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임실군, 허약 어르신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이 허약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장기 요양 상체를 사전 예방하고자, 허약 어르신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방문건강관리사업 65세 이상 신규등록자 중 방문건강관리 면접조사 결과 허약 판정(허약 조사표에 따른 4~12점)된 고위험 허약 노인이다.

프로그램은 개별로 4주에 걸쳐 총 4회 진행되며 첫 방문 시 기초검사(혈압·혈당·이상지질증)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영양제·영양식(두유) 제공 등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침·한방약제·처방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낙상 예방을 위해 안전 지팡이 배부 및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군은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 수칙을 안내하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허약한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다문화청소년 영어캠프 ‘호옹’

### 완주군 가족센터, 영어 배우며 진로 탐색·또래관계 형성

완주군 가족센터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진행, 진로·심리상담 활동과 사회적응도 도왔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지난 1일부터 5일의 일정으로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엠클립힐링교육원에서 ‘우리들의 진로를 담는 시간: 진담’을 주제로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불어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참여 학생의 부모들도 참석해 캠프기간동안 간교부로 실력을 뽐내는 발표의 시간도 마련됐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영어캠프 참여 소감 및 본인의 꿈을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 등을 가져 지켜보는 부모님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캠프기간동안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캠프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친구와 언니 오빠도 만나고 특히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의 시



간을 통해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직업, 학습, 문화·또래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힘걸음 다가서 건강한 미래 구상원이 되도록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9 장기화로 다양한 체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질 높은 영어교육체험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름방학프로그램 진행

남원시가 위탁한 사단법인 CYA(이사장 정진해)가 운영하는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갈등 관리”라는 주제로 집단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은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5회로 이루어지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갈등 관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배워 갈등으로 인해 아기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또는 위험상황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대처 능력과 건강한 사고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준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문제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 상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33-19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마화 여성기족과장은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역량개발을 위해 갈등관리 집단 담에 참가하는 행동에 대해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여름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임실군이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가시간의 활용 및 독서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군립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쑥쑥 동화구연’은 언니가 읽어주는 영어동화와 엄마가 동화? 아빠가 동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언니가 읽어주는 영어동화’는 시골에서 흔히 접하기 힘든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호응 속에 종료됐다.

또한 8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엄마가 동화? 아빠가 동화?는 임실지역 학생 어머니들과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



있게 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토요일 10시 30분에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로 오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신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 황학당에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이 세워졌다.

전주교대는 지난 역사 동안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 기부자를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3시에 열린 명예의 전당 기념촬영식에는 박병춘 총장과 문홍근 총동창회장, 보좌자 1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명예의 전당을 보며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했다.

전주교대 황학당 1층 로비에 설치한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은 가로 5m, 세로 2.5m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기부 금액 별로 7간으로 나눠 △ President's Honor Club(1억원 이상) △ Gold Honor Club(5천만원 이상) △ Silver Honor Club(2천만원과 1천만원 이상) △ Bronze Honor Club(5백만원 이상) △ Honor Club(3백만원 이상) △ JNUC Sponsor(1백만원 이상)로



설치했다.

현재 전주교대 명예의 전당에는 KB국민은행 전주종합금융센터지점과 전주교대 총동창회 고액 기부자를 비롯해 동문, 기업체, 단체 등 총 300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김재훈 기자



## 장수소방서, 119청소년단 여름캠프 참여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제3회 전북 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에 장수119청소년단원 18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가하였다.

119청소년단 여름캠프는 안전지식과 정보를 체험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습관을 형성하는 행사로 △소년단 단체 화합 활동 △악수사고, 급류사고, 선박탈출 등 물놀이 안전체험 △화재 안전 △지진·태풍 대처 △생활안전체험 등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체험캠프에 참여한 송수미 지도교사는 “안전캠프가 재난 상황에서 위기 대처방법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안전습득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단원 간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수=고판호 기자



## 김제 광원영농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 광원영농조합법인(대표 김광원)은 지난 9일 부랑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부랑면 금화마을에 위치한 광원영농조합법인은 주로 청보리 벚꽃으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농산물(콩, 벼) 재배 및 축산업을 하는 영농법인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광원영농조합법인 김광원 대표는, 그동안 부랑면 면민의 날 등 지역 행사 때마다 송아지나 가전제품 및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평소 나눔 문화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본격적인 혹서기에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며 성금을 기탁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무주군가족센터,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심화반 종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진진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진행한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심화반은 지난 5일 종강했다.

무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심화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종강식 및 수료식을 진행했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심화반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서 활동하는 무주군 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수업 진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에 맞춰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진행 방법, 다문화 이해를 돋기 위한 다양한 주제별 교육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20회기로 주2회, 40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심화반에는 무주군 내 거주하는 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수강하였으며, 그중 6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한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거머쥐었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심화반 수강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